“고유가·고환율 지속”… 설 앞두고 기름값 ‘고공행진’

전국 평균가격 14주 연속 상승
전남 휘발윳값 ℓ당 ‘1700원대’
석유 공급불안…국제유가 급등
“연휴 포함 이달말까지 오를 것”

설 연휴를 앞두고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도 14주 연속 상승했다.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 불안정성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설 연휴가 있는 1월 말까지 고유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기준 광주지역 ℓ당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689.54원으로, 직전 주인 1667.55원과 비교해 21.99원(1.32%) 올랐다. 휘발윳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10월 둘째 주 1560.48원과 비교하면 무려 129.06원(8.27%) 비싸졌으며, 14주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지역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4주 연속 상승하며 약 5개월 만에 다시 ‘1700원대’로 진입했다. 1월 셋째 주 ℓ당 보통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1700.71원으로, 바로 전주인 1684.52원보다 16.19원(0.96%) 올랐다. 10월 둘째 주 1595.89원과 비교하면 104.82원(6.57%) 상승했다.

자동차용경유 가격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셋째 주 광주지역 ℓ당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539.00원으로, 전 주인 1512.17원보다 26.83원(1.77%) 상승했다. 경윳값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10월 둘째 주 1389.60원과 비교하면 무려 149.4원(10.75%) 비싸졌으며,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14주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1월 셋째 주 ℓ당 경유 평균판매가격은 1548.44원으로, 바로 전주인 1529.57원과 비교해 18.87(1.23%)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한 10월 넷째 주 1428.84원과 비교하면 119.6원(8.37%) 올랐으며, 12주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국 휘발유 판매가격을 보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1월 셋째 주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24.5원 상승한 ℓ당 1773.8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1706.1원) 대비 67.7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18.7원 상승한 ℓ당 1678.6원으로, 전국 평균 가격 대비 27.5원 낮았다. 서울 다음으로 기름값이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제주도의 휘발유 판매가격은 1743.27원을 기록하며 전주보다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이처럼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이 고공행진 하는 데에는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1월 셋째 주 기준 직전 주보다 5.9달러 오른 82.9달러로 나타났으며, 국제 휘발유 가격은 3.3달러 오른 86.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5.2달러 상승한 98.3달러로 집계됐다. 1월 셋째 주 국제유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시아 제재 발표에 따른 세계 석유 공급 불안 우려 지속과 미국 주간 상업 원유 재고 감소 등의 여파로 상승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원달러환율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달러 강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정국 등 국내 정치적 영향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3일 1400원대에서 지난달 말 1470원대까지 치솟았다. 지난 17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날보다 1.6원 오른 1458.3원에 마감됐다. 이날 환율은 1.2원 상승한 1457.9원에 개장한 뒤 1450원 중반대에서 등락했다.

환율 상승 폭이 이전보다 다소 둔화했음에도 고유가 기조는 이달 말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주요 원유 수출국들의 생산량 동결 및 감산 가능성, 지정학적 불안 등의 요인이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설 연휴를 포함해 1월 말까지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적으로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는 데에는 2~3주가량이 소요된다. **나다운 기자**

중소조선연구원 “첨단 모빌리티 경쟁력 강화”

복합소재 기술이전 협약

중소조선연구원과 ㈜컴퍼지트솔루션즈는 지난 16일 중소조선연구원 본원에서 ‘진동감쇄 및 풀림방지 기능을 갖는 복합소재 구동축과 커플링부의 결합구조’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기술은 중소조선연구원이 개발한 복합소재 구조물의 응력 집중 분산 체결 기술로, 진동 감쇄와 풀림 방지 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해양·항공 등 주요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송용 모빌리티 도어, 구조물 등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컴퍼지트솔루션즈는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시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보다 효율적인 복합소재 제품 개발을 동시에 모색할 계획이다. 김세윤 대표는 “해양 모빌리티 산업에서 기술적 이점을 확보하고, 환경과 성능을 고려한 제품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이전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추진 중인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3.0)’ 사업과 연계됐다. 이 사업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융복합 공동기술사업화를 위한 실용화 개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용석 중소조선연구원 원장은 “이번 사례는 연구원의 기술이 기업을 통해 실제 시장에 적용되는 예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BRIDGE 3.0 사업 등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과 협력해 우수한 연구 성과가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현대차·기아, 美 ‘굿디자인 어워드’ 19관왕

현대차·기아는 자사 19개 제품이 미국 ‘2024 굿디자인 어워드’ 운송, 로보틱스 등 다양한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미국 굿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부문별 우수 디자인 제품을 선정해 부여하는 상이다.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CES에서 선보인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DICE(Digital Curated Experience)’와 ‘SPACE(Spatial Curated Experience)’, ‘CITY POD’은 운송 부문에서 굿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

DICE는 AI를 기반으로 탑승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이며, SPACE는 이용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는 공공 모빌리티다. 수소 에너지기술이 적용된 CITY POD은 물류 모빌리티로, 효율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미래 물류 비전을 제시한다.

기아의 해외 전략형 모델 K4도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K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기반으로 역동적이며 강인한 형태를 강조한다. 전면부는 별자리를 형상화한 스타맵 라이팅 기술로 한층 진화된 타이거 페이스를 완성하며 측면부는 루프에서 후면부 끝까지 완만하게 이어지는 패스트백 실루엣을 갖추고 있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도 굿디자인 어워드에 선정됐다.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네오룬은 한국의 ‘환대’ 문화를 반영한 B필러리스 코치도어와 넓은 실내를 자랑한다.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서 영감을 받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한국적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박소영 기자**

제 1155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10	16	19	27	37	38	13

등위	당첨방법	당 첨 금
1등	6개 숫자 일치	40억6637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082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9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은행, ‘KIA 우승기원 예·적금’ 조기 출시

V12 기념…성적 따라 우대금리
양현종·고병일 은행장 1호 가입

광주은행은 최근 KIA타이거즈의 V12 달성을 기념하고, V13을 기원하는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조기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은 지역 명문구단 KIA타이거즈의 우승을 기원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광주은행 대표 스테디셀러 시즌 상품으로 오는 7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올해는 특별히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이 1호 가입자로 나서며 V13을 기원했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5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하며, KIA타이거즈의 한 해 성적에 따라 최대 연 0.25%p(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3.15%(기본 연 2.90%)의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조건은 △정규시즌 우승 시 연 0.10%p △포스트시즌 진출 시 연 0.05%p △한국시리즈 우승 시 연 0.10%p 이다.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월 1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정액적립식 상품으로, 예금과 동일한 조건의 우대금리(최대 연 0.25%p)를 제공하며, 응원의 재미를 더하기 위한 이벤트 우대금리를 최대 연 1.00%p를 추가로 제공해 최고 연 4.05%(기본 연 2.80%)의 금리를 제공한다.

이벤트 조건은 KIA타이거즈의 2025년 정규시즌 기록에 따라 적용되며 △팀 타율 3할 이상 연 0.10%p △40-40(40홈런-40도루)타자 배출 연 0.40%p △챔피언스필드 방문 인증(최대 3회) 회당 연 0.10%p, 최대 연 0.30%p(인증기간 : 2025.3.7~10.31) △요구불 평균 잔액 300만원 이상 연 0.20%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특히, 작년 KIA타이거즈의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으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금’은 1만1369좌 총 3000억원,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적금’은 1만9090좌 약 690억원이 판매되며 많은 고객들이 우대금리의 혜택을 받아 기쁨을 함께 나눴다.

전력이 한층 두터워진 올해 역시 13번째 우승에 대한 지역민들과 팬들의 기대감에 부응코자 전년보다 더 많은 금리혜택으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 상품을 조기 출시해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리는 많은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야구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올 해 V13을 기원하기 위해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조기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금융니즈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지역민의 일상 속에 힘이 되는 금융생활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IA타이거즈 양현종 선수와 광주은행 고병일 은행장이 KIA의 V12 달성을 기념하고, V13을 기원하기 위해 출시한 ‘KIA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에 1호로 가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금호타이어,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용인중앙연구소 신규 취득

금호타이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심사에서 용인중앙연구소 고분자 분석실이 신규 인증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란 정부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중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곳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안전 교육, 안전 장비 점검,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등 종합적인 안전 관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된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인증을 위해 연구실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연구원들의 안전 의식을 높였다. 화학 실험 및 물리적 실험이 이루어지는 구역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또 연구 환경에 맞는 안전 장비를 지속 보강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연구원들이 안전하게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진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 전무는 “앞으로도 연구소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연구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